

## 學問·思想의 자유와 公安당국

金 秀 行

(서울大 經濟學科)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대학원생 두 명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다는 죄목으로 지금 공안당국에 구속되어 있다. 그들이 발표한 논문이나 저서가 ‘敵을 이롭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학과 교수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되었다. 만약 어느 학자가 엄밀한 분석을 통해 富의 균등 분배 및 주민 전체의 복지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북한의 집단주의가 남한의 개인주의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논문으로 발표하였을 때, 그 학자를 공안당국이 ‘이적 행위’라는 이유로 구속하는 것은 學問의 自由를 침해하는 것인가, 아닌가? 학문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것이 교수들의 대답이었다. 학문은 그 자체의 고유한 論理的一貫性和 現實的 妥當性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문이 현재의 집권세력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라는 기준에 의해서는 판단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학문에 대한 비판은 그 학문의 政治的 危險性 여부가 아닌 科學的 節次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사회에서나 그 사회를 유지하여 기득권을 강화하려는 이익집단이 있기 마련이고 이에 따라 일정한 법률 체계가 학문과 사상에 대해서도 좁든 넓은 테두리를 설정하게 된다. 공안당국이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地動說은 과학적으로 올바른 이론이지만, 그 당시의 종교교리에 어긋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동설의 주창자들은 커다란 뒤흔을 받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했다. 이로 말미암아 과학의 발달이나 과학의 현실적 적용이 크게 퇴보하게 된 것이다.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부르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비과학적인 종교교리가 현실적인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함으로써 사회의 물질적·정신적 발달을 구속한 것이다.

사실 학문하는 사람이 기존의 법률 체계를 의식하면서 자기의 학문을 전개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자신의 良心에 따라 자기의 學問을 성실하게 추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學者의 태도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 학문적 성과가 기존의 법률에 저촉된다 하여 학자가 구속된다면 이것은 매우 불행한 사태임에 틀림없다. 학자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학문과 사회에 대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우리는 지금 사회주의 나라들의 붕괴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일당 체제, 중앙집권적인 경제계획, 인사불관한 통치제도, 맑스레닌주의에 의한 사상적 통일 등등 외관상으로 보면 분열이나 대립의 요소는 하나도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劃一主義가 인간의 잠재력을 얼마나 크게 억압하였던가! 정치·경제·문화·학문·사상의 모든 면에서 기존의 것에 대한 도전을 완전히 봉쇄함으로써 기존의 체제를 개선하거나 변화시킬 가능성은 사라지고 오직 붕괴의 길로 나아간 것이 아닌가?

이러한 역학적 원리는 우리의 維新體制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일체의 시민적 자유를 제한하고 선거제도 자체를 폐기하며 일인독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는 그 체제를 진심으로 옹호하는 참다운 세력이 계속적으로 창출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앞집안이 되든지 순교자가 되라고 강요하는 체제가 오래 계속될 수는 없는 법이다.

6共은 그 출발부터 새로운 점이 많았다. 국민들이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에 의거하여 정권이 창출되었고, 또한 현 정권은 5共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5共非理를 파헤쳤다. 그리고 대담하게 북방정책을 추진하여 세계 潮流에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學問과 思想의 自由가 역대 정권 하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을 정도로 확대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뒤 노동운동·학생운동·통일운동 등등의 高揚에 대한 공안당국의 규제에 따라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점차 侵蝕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일단 확대된 자유를 다시 구속하려고 하기 때문에 온갖 오해와 마찰이 생겨나는 것이다.

학문과 사상은 자유로운 분위기 아래에서만 開花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질서와 이론에 대한 도전이 자유롭게 전개될 때에만 학문과 사상이 발달할 수 있다. 도전을 받으면서 기존의 사회체제와 사상체제가 자기의 결함과 모순을 시정해 나가는 것이 사회와 사상의 進歩였다. 지금의 질서와 학문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가정은 改良의 가능성을 부정함으로써 자칫 잘못하면 붕괴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더욱이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의 도전을 합리적으로 수용할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靑出於藍이라는 말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된다. 기성세대는 과거의 경험에 사로잡혀 현재의 역동적 발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우리 대통령이 蘇聯 대통령과 만나 國事를 논의한다든가 남·북 고위회담이 열린다는 것을 기성세대는 마치 꿈 속의 일처럼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전쟁이나 동·서 냉전의 시대를 겪지 않은 젊은 세대는 그러한 일들이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젊은 세대의 學問的·思想的 挑戰은 우리 사회를 새롭게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학과의 박사과정과 석사과정의 학생 각각 1명이 벌써 30일 이상 구속되어 있다. 그것도 단지 논문과 저서의 내용 때문이다. 부디 공안당국은 새로운 학문과 사상이 기존의 학문과 사상에 큰 자극을 주어 그것의 발달에 기여한다는 점과, 학문과 사상의 자유 없이는 사회 그 자체의 개량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들을 석방해 줄 것을 당부한다. ■